

보험료, 회사별로 차이 커진다

생보사·손보사 경험위험률 산출 적용 보장 내용 등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을

앞으로 같은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 간에 보험료 차이가 커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별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19일 금융감독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

험개발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률 산출과 적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 효용이 유지된다.

보험료를 책정해야 하며 과거 통계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사의 경험 위험률 대신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을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어 상품별 보험료가 비슷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범규준은 1단계로 4월1일 신규 가입하는 암보험, 재해보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상 생명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이상 장기손해보험), 주

택화재보험(일반 손해보험)부터 경험위험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회사별 준비 상황에 따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9월말까지 적용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내년 4월부터는 질병·재해보 인한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생명보험), 재물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장기손해보험), 개인 상해보험(일반 손해보험)에 경험 위험률을 적용하고 2009년 4월부터는 연금보험(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장기손해보험), 단체 상해보험(일반 손

▲경험 위험률= 각 보험회사가 보험료산출에 적용하는 위험률을 자사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을 뜻한다. 즉, 암보험 상품의 경우 기존 암 관련 보험금 지급이 많은 회사는 새로운 암보험을 만들 때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예상보다 적었던 회사는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다.

해보험)으로 확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험위험률을 사용하면 회사별로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보험료 격차가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득 10% 늘어나면 8%는 외국에서 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득이 1% 늘어날 경우 국내서비스 소비는 0.3% 증가에 그치는데 비해 해외서비스 소비는 0.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내서비스 소비에 대한 해외서비스 소비의 비율이 1990년대 10%대 초반에 그쳤으나 매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20%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승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1인당 원화표시 국민총소득(GNI)과 1인당 국내 및 해외서비스 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증가할 때 국내에서 관광·교육·의료 등을 비롯한 서비스 부문의 소비는 0.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비해 해외서비스 소비는 0.8% 늘어나 해외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국내 소비의 2.5배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내의 관광·교육·의료 등의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서비스소비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뉴스

신용카드 해지해도 포인트는 유지된다

여신금융협, 재가입 때 이용 가능

오는 8월부터 신용카드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회원 탈퇴를 요청하더라도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까지 유지돼 재가입시 다시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부가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약관에 기재되지 않고 카드 안내서나 홈페이지 등에만 기재됐던 포인트제도 관련 내용도 약관에 명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신용카드 포인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런 내용의 포인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객이 카드를 해지하거나 정지, 또는 탈퇴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과 소멸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고지한 뒤 고객의 탈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남은 포인트는 사별로 정해진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또 고객의 신용상태 변화 등의 이유로 카드사가 카드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경우에도 역시 남은 포인트가 소멸시효 동안 유지된다. 이에 따라 카드를 해지하거나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할 경우 기존에 남아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고객이 탈퇴와 함께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적립 포인트의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시효와 관계없이 바로 포인트가 소멸된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시스템어컨 "열대야에도 쾌면"
삼성전자가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선보인 하우젠 시스템어컨. 135mm 두께의 초슬림 원웨이 제품으로, 일반 아파트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열대야 쾌면기능' 등을 장착했다. <삼성광전자 제공>

10대그룹 임원 임금인상률 年 20% 일반 노동자의 8배

기업의 '별' 임원들의 임금인상률이 최근 수년간 20% 안팎의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대그룹 12월 결산 상장 계열사 가운데 신규 상장법인과 이사보수한도를 공개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70개사가 주주총회 안건으로 제시한 올해 이사 보수한도는 1인당 평균 7억4천397만9천원으로 작년 대비 19.24%나 인상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올해 사무직 임금을 고작 2.25% 인상한 반면 13명의 이사에 대한 보수한도는 600억원에서 1천100억원으로 무려 83.33% 인상했다. 한진그룹(34.04%)과 현대차그룹(22.34%), 한화그룹(19.17%), SK그룹(17.94%) 등도 두자릿수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9월부터 공공·민간 아파트 청약가점제 전면시행

9월 공공·민간아파트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청약가점제의 윤곽이 다음주말쯤 발표된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19일 평화방송라디오의 한 프로그래머 출연해 "청약가점제의 시안을 다음주 말에는 발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더 듣고 4월말까지는 공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차익이 많이 생기는 데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면 안된다"면서 "현재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청약가점제의 큰 원칙은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 경우 배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데 대해 서 본부장은 "공시가격은 인위적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가격상승을 반영했다"면서 "공시가격은 평균적으로 시세의 80%를 반영했고 과표적용률은 다시 공시가격의 80%이기 때문에 과표는 시세의 64% 정도"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기예금 '年初 효과' 5~6%대 속속 등장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5~6%대 정기예금 상품이 속출하고 있다. 각 시중은행들이 기존잔기에 나서는 연초라는 특수성 등이 반영된 결과다. 중국과 미국에서 촉발된 악재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자금 중 일부가 정기예금에 유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9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일부 정기예금 상품에 5~6%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연초부터 예금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27일까지 코스피200 지수연동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 6.0% 확정금리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하나은행도 27일까지 주가지수 연동예금인 '지수플러스정기예금'과 함께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연 6.0%의 확정금리를 지급한다. 지수플러스정기예금은 코스피200 및 삼성전자 보통주에 투자하며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각 은행이 내놓고 있는 특관 상품이나 특정 통장에 대한 고금리 정기예금도 살펴볼 만하다. 기업은행은 이달 말까지 6개월에 연 5.10%, 1년에 최고 연 5.25%의 금리를 제공하는 특관을 진행 중이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우리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연동 상품인 '오렌지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가 연 5.04%(6개월 연 4.84%)이며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0.1%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연합뉴스

'전경련 회장 추대' 조석래 효성 회장은? 영어·일어 능통 재계의 '학구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경련 회장 자리를 조석래(73) 효성 회장이 꿰찼다. 조 회장은 한때 대학교수를 꿈꾸던 청년이었다. 그런 그가 창업주인 조흥제 선대 회장의 부름을 받고 기업인으로 변신한 것은 1966년 2월의 일이다. 경기고와 일본 와세다대를 거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일리노이 공대에서 화학학 석사를 받은 다음 박사를 준비하던 때였다. 결국 효성물산 관리부장으로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지 40년만에 재계의 상징적인 '수장' 또는 '얼굴' 적에 해당하는 자리에 앉게 된 셈이다. 조 회장의 경영 참여는 남달리 속도가 빨랐다. 입사한 해 11월 동양나 이룬 건설본부장을 맡아 울산공장 건설을 진두지휘했고, 이후 73년 동양물리에스터, 75년 효성중공업을

설립하면서 효성을 극적인 규모로 키웠다. 당시 효성은 자산 기준 재계 10위권에 포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주력인 섬유·의류산업 쇠퇴 등으로 효성은 사세가 약화돼 지금은 중견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것이 조 회장의 전경련 회장 추대에 결정적인 걸림돌의 하나가 되기도 했다. 81년부터 줄곧 회장으로 효성을 이끌어온 그는 무엇보다 재계의 대표적인 학구파다. 경제·경영서적 다독으로 유명할뿐 아니라 영어와 일어에 능통한 편이다. 특히 일어는 국어처럼 구사하는 수준이고, 그 때문에 일본 정·재계 인사들과의 교류 폭도 깊어 '일본통'으로 통한다. 독서와 클래식 감상, 골프를 즐긴다는 그는 부인 송광자 씨와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들 2년 연속 수익성 악화 환율 등 대외 악재에 내수경기 둔화 영향

원·달러 환율급락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비롯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2년 연속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시점인 2004년 기업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해 이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환율과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경쟁 격화에 따른 주요 수출 품목의 제품가격 하락, 내수경기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19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금융업종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30대 대기업의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2004년 12.0%에서 2005년 9.4%로, 2.7%포인트 낮아진 데 이어 지난해는 7.8%까지 하락해 전년도에 비해 다시 1.5%포인트 낮아졌다. 시가총액 1위 상장사인 삼성전자는 2004년 영업이익률이 20.9%였으나 2005년 14%로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2004년의 절반 수준인 11.8%까지 떨어

■ 시가총액 15위 대기업 영업이익률 (단위: %·%)

순위	종목명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증감	
		'04년	'05년	'06년	'04-'05	'05-'06
1	삼성전자	20.9	14.0	11.8	-6.8	-2.3
2	POSCO	25.5	27.2	19.4	1.7	-7.8
3	한국전력	8.4	5.3	4.6	-3.1	-0.7
4	SK텔레콤	24.3	26.1	24.3	1.8	-1.9
5	하이닉스	31.5	24.9	24.7	-6.6	-0.1
6	현대차	7.2	5.1	4.5	-2.2	-0.5
7	현대중공업	-1.1	0.9	7.0	확진환	6.1
8	KT	17.9	14.0	14.8	-4.0	0.8
9	LG필립스LCD	20.3	5.0	-9.3	-15.3	확진환
10	SK	9.3	5.5	4.9	-3.8	-0.6
11	신세계	7.8	8.5	8.8	0.7	0.3
12	롯데쇼핑	7.1	8.0	8.3	0.9	0.3
13	LG전자	5.1	3.8	2.3	-1.2	-1.5
14	KT&G	38.5	30.6	31.5	-7.9	0.9
15	S-Oil	11.5	7.3	6.4	-4.2	-0.9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공기업 중복 합격 막기 채용시기 일정기간 집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비롯한 100여 개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공인 외국어시험 성적, 대학 학점 등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이 정부당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한 사람이 여러 공공기관의 입사시험에 합격해 다른 사람이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비슷한 유형의 공기업들의 경우, 채용시기를 일정기간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의로운 일을 하다 다친 사람이나 선정을 펼쳐 사회의 모범이 된 사람 등은 공공기관 입사에서 다소 유리하도록 하는 등 사회정의, 사회형평적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부처는 공기업들이 보다 훌륭한 인재를 뽑고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 채용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이나 5월 초 경영혁신 지침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00여 개 공공기관에 내려보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한 공공기관의 입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2~4개 공공기관에도 잇따라 합격해 다른 지원자가 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고 해당 공공기관은 수백대 1의 경쟁과정을 통해 뽑아 놓은 사람이 다른 회사를 선택하면서 다시 전형을 밟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컴퓨터프리카	컴퓨터 유지보수(A/S)직원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21	062-226-3251
건도기업	자동차 운전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21	062-523-0235
중흥시스템	정규직 전기기사 모집(전기, 전자 전공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3/22	062-953-6256
그린원	KTF 서광주점메니저/정규직 상담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3/22	042-223-4900
(재)사람의자기중용본부	(재)사람의자기중용본부 광주사무소 상근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3/22	02-363-2114
범우	영업관리 및 생산기능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2	062-955-7885
한국스리얼	생산직/공무기술직 사원 채용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3	031-359-2100
광주교육문화	제품수불관리 및 전산직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3/23	062-373-7200
에프엔엔	네트워크 공무 및 인터넷 정비(A/S) 사원채용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23	062-716-0121
대명하이텍	자동차관련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4	062-953-6444
에프엔엔	생산직/제조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4	062-973-4401
웰컴컴퍼니	광주사무점 이미지프린트 도입 오픈인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25	02-3436-0423
일시스템	제2정비동업전선센터 N/W/보안/병화병 등 사원모집	초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3/25	062-384-1161
시스넷정보기술	네트워크 엔지니어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3/26	062-511-434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